

죽은 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법의학자 ‘문국진’

문국진(84) 고려대 명예교수는 평생 죽은 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해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말없는 그들과 법의학으로 대화하면서 권리를 찾아줬던 것이다. 한국의 법의학 개척자이기도 한 그는 팔순이 넘은 지금도 타계한 예술가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를 서울 여의도 자택에서 만나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 박방주 _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Q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

A 임상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이라면 법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치료하고 다루는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주류라면 잘못된 인권을, 말하자면 잘못 판단해서 인권침해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법의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수로 있을 때는 무슨 증거물을 검증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부검해서 그 사인을 밝힌다든가 이런 일들을 주로 했지요. 이제는 현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요. 위대한 예술가들이나 저명인사들은 타계한 뒤 사인이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남긴 서적이거나 자료를 통해 그런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책 부검’을 통해 알아낸 사실 한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책 부검’을 통해 밝힌 위대한 예술가들의 사인

Q ‘책 부검’을 통해 알아낸 사실 한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A 음악가들의 사인이 왈가왈부한 게 참 많지 않았습니까? 모차르트·베토벤·차이코프스키 등이 대표적이지요. 차이코프스키 사인에 대해 소개해 보지요. 그의 사인은 콜레라에 걸려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와 정황을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콜레라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염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체를 공개해서 마지막 작별의식을 갖는데 높은 사람들 또는 정치가들이 와서 그 손에 키스를 했다고 돼있거든요. 콜레라라는 전염병으로 죽었다면 사람을 격리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 시체를 소각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고관대작들이 와서 그 손에다 키스하는 걸 허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그 당시에 콜레라를 법정전염병으로 하지 않았는지를 찾아봤더니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정부가 차이코프스키가 죽은 다음에 그 동생한테 ‘콜레라로 죽은 게 틀림없다’는 편지를 여러 장 보낸 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던 거죠. 차이코프스키는

법학을 전공했다가 음악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동성 애자였는데, 그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 당시는 동성애자의 경우 감옥행이거나 중형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법조계에 차이코프스키의 동창들이 많아 차라리 공개 처형보다는 자결을 하도록 권했고, 차이코프스키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동창들은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콜레라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거지요. 의사의 진찰 기록에 콜레라와 자결에 사용한 독약인 '비소'의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 중요해요. 비소도 쌀뜨물 같은 변이 나오니까. 이렇게 차이코프스키의 사인은 조작이 된 거지요.

모차르트 사인도 재미있습니다. 한 의사회 회장이 돈을 많이 버니까 와인공장을 차렸어요. 그 당시에는 매독이 정말 많이 퍼져있었습니다. 그 당시 매독을 치료하는 건 수은을 몸에 발라서 치료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의사는 혹시 와인에다가 수은을 넣으면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해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와인에다 수은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하고 친한 모차르트가 그 집에서 두세 달을 같이 지내면서 술을 갖다 먹다가 수은중독에 걸린 거지요. 수은중독이 되면 심장에도 병이 걸리고, 콩팥에도 병이 생기고, 발진도 나고, 죽으면 반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올 때마다 후대의 의사들은 사인을 각기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Q 그러면 그런 자료를 러시아도 다녀오고 하면서 전부 취합하셨겠네요?

A 물론 취합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자료 취합은 내가 뉴욕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맺은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뉴욕대학은 세계적인 법의학센터입니다. 뉴욕대학이라는 것이 대학과 뉴욕시의 법의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의과대학의 크기나 법의학과의 크기가 같아요. 뉴욕시가 건물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시신을 전부 그리로 운반해서 부검을 합니다. 부검대가 모두 14대가 있는데,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50~80대 부검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법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하나의 소원인데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전부가 모입니다. 나는 1973년도에 가서 공부했어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서로 자료를 챙겨주고, 도움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헬퍼이라는 책임교수가 만들어 놔어요. 나도 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거지요.

Q 음악가의 사인에 대한 것은 몇 명이나 연구하셨나요?

A 음악가는 갑자기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은 10명이고, 장수한 음악가들에 대한 것도 썼어요. 그런 것을 모은 게 두 권의 책인데 하나는 '모차르트의 귀' 또 하나는 '바흐의 두개골을 열다' 입니다. 반 고흐 등 미술가들에 대한 것도 열심히 파헤치고 있어요.

Q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A 반 고흐에 대해서는 자살이다, 타살이다, 사고사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쪽 보니까 반 고흐가 죽기 전에 총을 두 방을 쏘더군요. 자기 가슴에 두 방을 쏘는데 3일 후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법의학적으로 완전히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사를 시작해서 5년간 자료 수집을 했지요. 고흐는 어렸을 때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고흐는 3월 30일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기 꼭 1년 전인 3월 30일에 어머니가 고흐 형을 낳았으나 곧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죽은 아이 대신에 준 아이라고 생각해서 죽은 형에게 붙였던 '반 고흐'라는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고흐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자신보다 죽은 형을 더 사랑한다는 피해의식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흐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었습니다. 그가 정열적인 노란색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건 해초로 담은 엡센트라는 술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술을 먹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지요.

미국 유학 중 'CL' 혈액형 발견

Q 법의학에 입문한 동기가 뭐니까?

A 대학 3학년 때 어느날 외출했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비를 피할 데를 찾다보니 헌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비나 좀 멎으며 가야 되겠다 하고 잠깐 책방에서 책을 펴다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일본학자가 쓴 법의학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법의학이 뭔지 모를 때였어요. 책장을 넘기다 보니 첫 구절에 '임상의학이 생명존중이라면 법의학은 권리존중의 의학이다', '인권을 존중할 줄 알면 민주주의에서는 발달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게 계기라고 봐야지요.

Q 그 당시에 국내 대학에 법의학이 개설돼 있었나요?

A 없었지요. 법의학 교수가 없어서 우선 병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재구 교수라는 분이 왜 병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느냐고 문기에 사실은 법의학을 공부하려는데 공부할 때가 없어서 제일 가까운 병리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더니, 마침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

람을 뽑는다며 나를 추천해줬지요. 그게 결정적으로 법의학에 발을 들여놓게 했죠.

Q 유학은 언제 가셨어요?

A 그때만 해도 유학을 제대로 가지를 못했지요. 1964년인가 1965년도에 일본 동대에 가서 한 20일씩 체류하면서 배웠지요. 그 대학에 있던 분이 일본 법의학회 평의원으로 날 추천해줬어요. 외국 사람에게 평의원을 잘 안 주는데, 평의원이 되다보니까 교통비도 주는 등 혜택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 한국 정부에서도 보내 줄 명분이 생긴 거지요.

Q 그 당시에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A 1960년대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 컨퍼런스를 하는 데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플랑크톤으로 수심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였죠. 양국 과학자들이 입씨름을 하다가 나한테 그걸 검증해보라는 연구 과제를 줬습니다. 한국에서 그 실험을 해 익사하더라도 3m14cm 이상 깊게 빠질 수 없다는 것과 플랑크톤으로 익사한 깊이를 알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Q 미국에 유학도 갔는데 거기서 얻은 연구 성과는 무엇입니까?

A 1년 반 동안 가 있으면서 혈액형 하나를 발견했지요. 지금도 교과서에 내 이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당시 뉴욕대학에는 Rh혈액형을 발견한 위나 교수가 있었는데 그와 공동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이 CL이라는 혈액형이지요. 말하자면 Rh+Rh- 하는 식으로 CL+CL- 형이 있는데 대부분이 CL+이고, CL-가 14% 돼요. 처음에 내가 발견했는데 그걸 국제학회에 내도 퇴짜를 맞는 겁니다. 실험 방법도, 논문 작성법도 서툴고 해서 그랬지요. 위나 교수의 도움을 받아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인 알고 죽는 것도 복지국가 요소의 하나

Q 옛날 법의학계의 현실과 오늘의 법의학계를 비교해볼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 법의학이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단위 법 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준의 법 의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반 의사는 자기가 치료했던 환자가 죽었을 때에 한해서만 사망진단서를 씁니다. 그 외의 사망자는 검시관 또는 법의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죽음을 컨트롤하는 게 법이라는 거지요. 법의관이 되려면 병리를 공부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의를 따고 다시 2년을 다시

공부한 뒤 국가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리권한을 그 사람이 가지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검시책임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뺑소니 사고가 나면 검시관이 출동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줄을 치고서는 자동차 몇 cm의 범퍼 높이에 서 충돌했고, 쓰러지면서 왜 이 사람이 골절이 입어 죽었고,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게 되면 어디쯤 가고 있을 것이라고 전부 파악합니다. 그런 뒤 경찰들한테 무전을 쳐요. 우측 헤드라이트에 핏자국이 묻은 범퍼 높이 몇 cm짜리 차가 있으면 체포하라고 말이지요. 그런 뒤 그 시체를 갖고 들어가서 부검을 합니다. 헤드라이트에 묻은 피와 부검한 피가 동일하면 뺑소니 운전사는 꼼짝 못하는 거지요.

미국에서는 검시관을 국가에서 길러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검시관을 길러내지 않으니까 우리 대학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 겁니다. 결국 미국에 시찰을 다녀온 우리나라 의학교육시찰단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법의학교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 졸업생들이 법의학의 법자도 모르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망진단을 쓰는데 열 사람의 사인을 받고 나면 제각기 다른 진단이 나오고, 의사는 임상적으로 병을 고치기만 하면 되지 진단서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쪽 우리나라에서 사망진단서를 써 왔어요.

Q 지금 법의학 교실이 없습니까?

A 12곳이 있어요. 내가 1976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뿐이었어요. 그 후 제자들이 생기다 보니 자꾸 퍼지고 나가서 지금은 12개가 됐지요. 문제는 검사들이 검시관한테 검시권한을 넘기는 것을 한사코 반대합니다. 부검을 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이지요. 의사들이 자꾸 기피하다보니까 사망진단서에 심장마비는 병사가 아니다 라며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Q 그러니까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A 맞습니다. 요즘 복지국가의 조건의 하나가 정확한 사인을 알고 죽는 것이 복지국가 요소의 하나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단계가 아직 요원하지요.

책임 막중하지만 국가에서 받는 혜택 아쉬워

Q 법의학계에서 그때 활동했던 동료들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A 거의 다 돌아가셨지요. 최지희 선생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

요. 이젠 남아있는 건 다 내 제자들이고, 동료였던 분들은 남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Q 법의학계에 뛰어들 것 에 대해서 후회를 하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A 많지요. 우선은 내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의 이상이었어요. 사람의 권리를 옹호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이 잘못된 그 삶을 바로 잡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우는 형편없었어요. 그 당시에 의사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큰 사건 나는 날에는 전부 나가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도 일단 문제가 생겼다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국가에서 조금도 혜택을 주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요. 법정에 범인들과 함께 설 때도 있는데 범인들이 위협도 했어요.

Q 미국의 검사관인 ME라는 사람들은 대접을 잘 받으니까?

A 그럼요. 가령 그 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검사관이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그 앞을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지요. 대통령조차도 이 라인은 침범을 못합니다. 일단 죽은 사람에 대한 권한은 검사관한테 다 주고 있어요. 월급 등 대우도 아주 좋습니다. 전문의와 검사관이라는 두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교수님이 지금까지 해부한 시체는 몇 구나 되나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A 한 2천구 정도 되는데요, 우선 내가 법 의학을 공부해서 정말 보람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한강나루터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50년 말인가 60년 초에 한강 나루터에서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턱과 유방꼭지, 음경에 물린 자국이 있었어요. 성 이상자가 죽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사인은 머리를 맞아 뇌손상으로 죽었어요. 그때 한강나루터에는 시멘트블록을 찍는 노동자들 50명이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사진들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한 것 같으며 전부 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부검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자국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피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굽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굽힌 자국이 전혀 없어요. 사후에 물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린 잇자국을 본떠서 주변 사람들과 대조했지요. 물었던 이 흔적도 지문처럼 같은 게 없



제주서 실종된 유치원 여교사가 제주도 애월읍 고내봉 인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거든요. 결국은 내가 제안한 방법으로 그 남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Q 한국의 법의학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A 검시제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인력을 양성해야 해요. 지금은 검사가 검시권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검에 대한 사인을 밝히는 것은 검사도 기피하고 경찰관도 기피하고 일반 의사도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그것을 맡겨서 하다보니까 오늘 같은 사연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그야말로 평생을 직업으로서 사인을 밝히는데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해야 돼요. 검시제도를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Q 법 의학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물론 그것은 과학이지요. 왜냐 하면 증거가 없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심증만 갖고는 안 됩니다. 법의학은 아무리 내가 심증이 가도 자살이다 타살이다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야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지요. 어떤 여자의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못살게 구니까 여자가 목매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건 의학적으로 볼 때 자살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목매어서 죽었으니까 법의학적으로 자살인데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타살이거든요. 그러나 법의학자는 타살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는 목매는 걸 자기가 했다는 증거밖에 없으니까요. ㉔